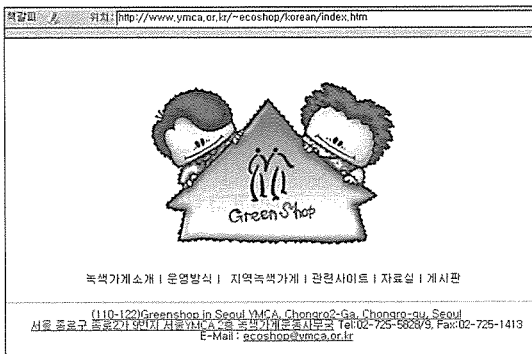




알뜰생활 지혜 인터넷에서



▲ YMCA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베품시장 '녹색가게'의 홈 페이지.

IMF 시대를 맞아 가급적이면 생활비를 줄이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알뜰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알뜰생활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는 베품시장과 할인쿠폰, 인터넷경매, 경품정보제공 사이트 등 폭 넓고 다양하다.

■ 베품시장 : 사이버 베품시장을 살살이 뒤지다 보면 침대와 소파는 물론 냉장고, 컴퓨터, 청바지 등을 싼 값에 구할 수 있고 아직 쓸만한 중고 자동차나 생활용품, 애완동물을 공짜로 주겠다는 글도 자주 오른다.

인터넷 베품시장으로는 YMCA에서 운영하는 녹색가게(greenshop.ymca.or.kr)나 사이버 베품시장(my.netian.com/~csp1s/) 등이 있다. 또 특정 노선과 특정 항공편에

대해 80%까지 할인해 주는 항공권 베품시장(www.koreanair.co.kr)도 있다.

■ 할인쿠폰 : 인터넷에서 발행하는 할인쿠폰(할인권)은 프린터로 출력만 하면 되고 여러 장을 인쇄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쿠폰문화가 잘 발달된 미국에서는 동네

슈퍼에서도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들이 연간 40억달러를 아낀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인터넷 검색어란에 쿠폰(coupon)을 입력하면 다양한 쿠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할인 쿠폰 사이트를 보면 리조트와 호텔숙박용의 경우 쿠폰마을(www.interpark.com/mails/coupon), 7백여군데의 음식점을 소개하고 5~10% 할인해 주는 코리아푸드(koreafood.co.kr), 웨딩점과 미장원, 사진관 등 2백여업종을 이용할 수 있는 베스트인터넷(www.bi.co.kr) 등이 있다.

■ 인터넷 경매 : 자신이 쓰던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팔 수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경매를 이용하면 된다.

골동품과 생활용품, 미술품 등 10

개 분야로 나뉜 인터넷 경매(www.auction.co.kr)가 있고 중소기업 상품을 최고 50% 할인해 주는 코리아숍(www.koreashop.co.kr)도 있다. 골드뱅크(www.goldbank.co.kr)에서도 사이버 경매가 실시되는데 일부 사이트는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 경품정보 제공사이트 : 요즘들어 운이 좋으면 공짜로 자동차와 노트북, 컴퓨터, PCS폰 등 각종 경품을 탈 수 있는 인터넷 경품정보 제공사이트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경품정보 제공사이트로는 노다지(www.nodagi.com)가 있고 찬스잇(www.chanceit.co.kr)은 7개 항목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또 퀴즈박스(www.quizbox.co.kr)와 한겨레 경품대잔치(news.hani.co.kr/luck/index.html), 경품퀴즈(blue.nownuri.net/~antlal/), 행운클럽(www.luckclub.com/new.htm) 등이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탐정놀이'를

'경찰청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탐정놀이, 인질구출 게임을 즐기세요.'

경찰청은 최근 범죄예방과 신고방법, 고소·고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 활동을 응용한 탐정놀이와 인질구출 등 컴퓨터 게임을 즐길

훈테크·제이스텍·제이씨현시스템 등 국내 그래픽카드 제조업체들은 PCI방식 제품의 생산을 점차 줄이는 대신 AGP 제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PCI방식 그래픽 카드가 초당 135MB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 AGP방식 그래픽카드는 초당 500MB로 성능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주기판이 LX보드 이상의 제품으로 AGP 슬롯을 갖춰 잠재수요가 크다는 것도 AGP 제품출시의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내년부터 PCI방식 제품이 주력 제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방식의 사운드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이는 인텔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기판 공급업체들이 주기판상의 ISA슬롯을 제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PCI방식 사운드 칩 세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SA사운드카드는 초당 8MB로 최신 게임에서는 필수적인 다이렉트 3D 사운드를 활용할 때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여러개의 웨이브 파일을 전송하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단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뎀도 ISA방식에서 PCI방식으로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제이씨현시스템을 비롯한 모뎀 공급업체 대부분은 모뎀이 PCI방식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고 이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모뎀이 PCI방식 인터페이스로 대체되는 것은 속도개선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그래픽 카드나 사운드 카드와는 달리 편의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점이 특징이다.

모뎀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능이나 속도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주변기기로 ISA방식 모뎀의 경우 설치가 어렵고 충돌이 많은 데 비해 PCI방식 모뎀은 플러그 앤드 플레이(P&P)로 설치가 쉽고 자원(리소스)을 공유해도 충돌이 없는 등 소비자가 사용하기에도 ISA방식에 비해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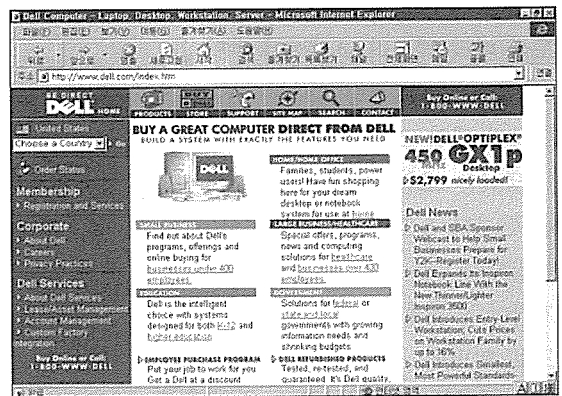
PC 저장장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저장매체인 HDD는 이달 제품출하 일정을 발표할 퀸텀코리아를 필두로 맥스터코리아·삼성전자·한국후지쯔 등 공급업체들이 울트라 DMA-66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제품을 내년부터 출시하기로 결정, 울트라 DMA-33 제품을 대체해나갈 움직임이다.

울트라 DMA-66은 HDD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초당 66MB로 기존 제품에 비해 2배 빨라졌으며 오류검색 체크코드인 CRC를 지원해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전송속도가 두배로 빨라짐에 따라 시스템 입출력과 관련된 병목현상이 없고 미국 컴팩컴퓨터와 델컴퓨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PC공급업체들이 이 방식의 제품을 기본 탑재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제품 채용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아이오메가코리아와 이메

이션코리아 등 차세대 FDD 공급업체들도 패럴렐 대신 USB방식 제품을 내년 초부터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가상기업(Virtual Corporation) 등장 멀지 않다



▲ 인터넷 가상기업의 초기형태로 알려진 미국 델컴퓨터사의 통신판매 웹 사이트.

생산, 주문, 판매, 금융거래 등 기업의 모든 업무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처리하는 '가상기업' (Virtual Corporation)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 (Virtual)이란 용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억장치를 의미하는 컴퓨터 용어 가상 메모리(Virtual Memory)에서 따온 것. 고객이 매장에 직접 나가서 제품을 고르고 대금을 지불하는 거래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과는 전혀 다른 미래형 첨단기업이다.

'가상기업'을 처음 창시한 사람은 미래학자인 벨 데이비도우(Bell Dabidow). 그는 21세기 정보통신혁명시대에 맞춰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모델로 이 개념을 개발했다. 그럼 가상기업이 활성화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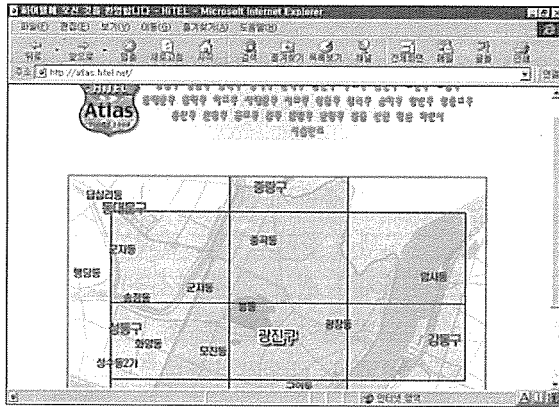
우 우리의 구매패턴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아보자. 수원에서 보험 외판을 하는 이모씨는 PC를 사기 위해 미국의 컴퓨터 회사인 텔컴퓨터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간다. 이씨는 자신의 신상정보와 원하는 사양, 가격대를 입력한다.

PC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전문가 조언코너를 선택해 용도에 따라 메모리 용량이나 중앙처리장치(CPU)의 성능 등 어려운 선택 항목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은 보험 외판원이므로 데스크톱PC보다 노트북 컴퓨터를 사는 게 유리하다. 일주일 뒤 노트북용 모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에 사는 게 더 좋을 것이다.” 텔컴퓨터는 이러한 조언과 함께 이씨에게 도움이 될 노트북PC를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여준다. 이씨가 만족할 경우 자금결제 방법과 카드번호 그리고 제품을 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컴퓨터 구매가 끝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세계적 컨설팅 전문업체 서미스트레티지의 마티 그룬 부사장은 가상기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21세기를 맞아 어떤 업종이든 물류·생산·거래·마케팅에서 혁신적인 효율을 거두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특히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상기업으로의 변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지도검색 사이트 급증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지역의 위치



▲ 하이텔 지도검색 사이트에서 지도찾기 서비스를 실행한 모습.

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지도검색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통신·하이텔·한글알타비스타·강남구청 등은 최근 홈페이지에 지리 정보시스템(GIS)용 소프트웨어(SW)와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연결, 인터넷으로 특정 지형 지물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지도 검색 서비스를 잇따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지도검색 사이트의 증가는 인터넷에서 GIS를 구현할 수 있는 웹 GIS기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여기에 지도제작업체들이 주요 도시의 지도를 전자화하는 디지털지도사업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는 것도 지도검색 사이트 활성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통신은 인터넷으로 인명·상호·업종 등의 정보 및 특정 지역의 지도정보를 서비스하는 KT114서비스(www.kt114.com)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찾아 볼 수 있는 지역은 서울·부산·인천 등 3개 시. 한국통신은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전화번호 DB에 이들 지역의 전자지도를 연계

한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접속자들이 특정 업체나 위치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을 지도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홈페이지(gis.kangnam.seoul.kr)에 최근 시행중인 새 주소제도에 기반한 강남구 안내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새 주소제이란 토지와 건물의 주소 체계를 분리해 기존 지번은 토지관리 용으로 사용하고 건물번호에 새 주소를 부여하는 것. 건물과 도로정보를 손쉽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강남구의 기존 주소 및 새 주소로 특정 위치를 검색한 뒤 이를 전자지도로 제공해주고 있다.

하이텔과 한글알타비스타도 최근 인터넷으로 주소를 찾고 이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지도서비스에 들어갔다. 하이텔의 경우 http://atlas.hitel.net에 접속하면 서울지역의 특정 주소에 해당하는 지도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한글 알타비스타(http://www.altavista.co.kr)도 지도찾기 항목에 접속한 뒤 서울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의 위치를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우대칼스 등 GIS전문업체들도 자사가 확보하고 있는 지도DB와 GIS용 검색엔진 등을 결합한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97